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Quarterly Magazine

공조 共 ZONE

2016
SPRING
VOL.041

노숙인들의 든든한 벗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 신부는
19년째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끼와 한줄기 희망을 전한다.

SPRING THEME
Hi KOREA

정책 가이드
그 동안 불편하셨죠?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로
단 10분 만에 민원 해결 OK!

INTERVIEW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온 남한산성 문화해설사
야나기 아이꼬 씨

공존 PLACE
작지만 탄탄한 조직력,
민원인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VISIT

하이 코리아! 글로벌 코리아!

출입국 · 외국인정책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왜 한국을 찾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알기 쉬운 통계로 정리해보았다.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1월호, 2016**

2015 출입국자 수

4,700,000명 증가

2015년 **6,637만 명**

2014년 **6,165만 명**

2012년 **5,032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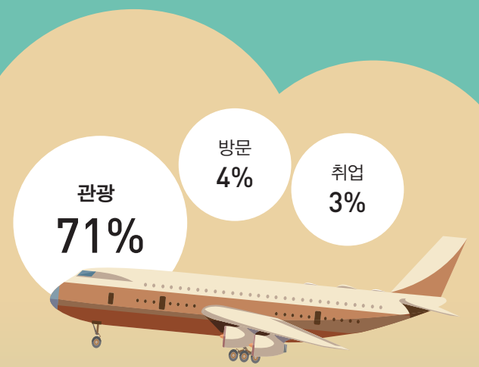
2000년 **2,180만 명**

2015년 대한민국 출입국자 수는 6,637만 명으로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4년보다 7.7% 증가한 66,372,908명으로 국민은 39,111,816명, 외국인은 27,261,092명을 차지했습니다. 2010년 출입국자 4천만 명 시대에 접어든 이래 2012년 5천만 명, 2014년 6천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 출입국 사상 최대인 6,637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메르스 영향에도

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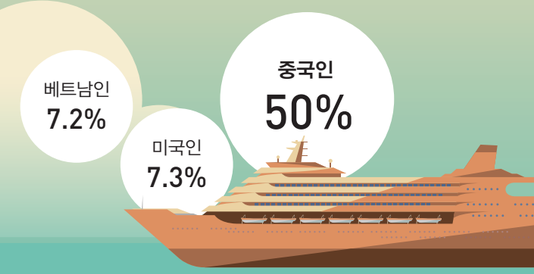
지난해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입국자 수는 203개 국가에서 총 13,359,701명으로 2014년에 비하여 6.3% 감소했습니다.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외국인 입국자 수는 6월부터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0.7%(1,641,673명) 감소했으나, 10월에서 12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찾은 목적은 관광이 952만 명(7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방문 53만 명(4%), 취업 51만 명(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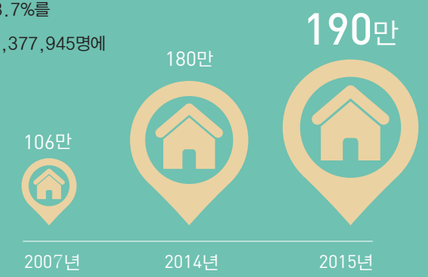


국내 체류외국인

2,000,000명 돌파 임박

체류외국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1,899,519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7%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장기체류 외국인은 1,467,873명으로 2014년 1,377,945명에 비해 6.5% 증가했고, 단기체류 외국인도 431,646명으로 2014년 419,673명에 비해 2.9% 증가했습니다. 2007년 체류외국인 최초 100만 명 돌파 이후 현재 그 두 배인 2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적극적인 개방과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질서행정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봄볕을 닮은 대한민국의 체온을 전합니다

We wish to deliver the warmth of spring in Korea

공존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망울을 틔워내며 봄을 반겨주는 꽃들과 인사는 하셨나요?
봄날의 따스한 온기가 마음까지 전해지는 화창한 날들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봄은 가장 활기찬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계획을 세우고 몸가짐을 가다듬으며
1년을 준비합니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재한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하고 거주하는 동안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올 한 해도 활기차게 달리겠습니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올해가 봄볕만큼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Hello, Gongzone Readers!
The spring has arrived and life is beginning to move after long hibernation.
Have you greeted the flowers welcoming the season with blooming buds? The warmth of the spring even reaches inside us.
The spring represents the start of a year and also the most active season.
Everyone prepares for a new year with their own plans. And Korea Immigration Service also begins a new year with a new mindset. We will make sure foreigners visiting South Korea will have a safe and comfortable stay with various policies.
Lastly, we hope this year, your life will be filled with the warmth of the spring.
Thank you.

Director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Kim, Woo-hyeon 김 우 현

공존

2016 SPRING VOL.041

일본에서 건너온
야나기 아이꼬 씨는 한국 생활 18년 차다.
외국인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는 그녀는
남한산성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올해 1월에 문을 연 평택출장소,
직원 17명의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민원인들에게 편안한 미소를 선사하는
현장을 방문한다.

〈공존〉을
앱북에서도 만나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ios용 Android용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immigration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계간 〈공존〉 2016 봄호 통권 제41호 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발행일** 2016년 5월 | **발행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Tel** 02-2110-4019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기획 및 디자인 (주)더쎄븐파트너스 **Tel** 02-2038-7700 | **인쇄** 문덕인쇄 **Tel** 02-462-8980

CONTENTS

02 **Theme Info**
하이 코리아! 글로벌 코리아!
04 **Editor's Message**
06 **공존人**
2015년도 '올해의 이민자상' 수상자 김하종 신부
"안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08 **김치와 피클**
서양에 피클이 있다면? 한국엔 나박김치가 있다!
10 **여행을 부탁해**
가족과 함께 즐기는 단양여행
16 **INTERVIEW**
남한산성 문화해설사
일본에서 온 야나기 아이꼬 씨
20 **정책 가이드**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로
단 10분 만에 민원 해결 OK!
24 **공존 PLACE**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28 **공존 STORY**
가야국 수로왕과 인도공주의 국제결혼 이야기
30 **명장면 국어사전**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한국말 "떨어지다"
32 **생활의 발견**
한국 사람들은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쓰죠?
34 **사(史)적인 시간**
한국과 프랑스의 130년 우정을 말하다
36 **STUDY ON KOREA**
흥(興)민족 대한민국
흥을 모르면 한국을 안다고 말하지 마라
40 **출입국 Q&A**
휴대전화 개통이 바로 되는 '실시간 실명인증 서비스'
42 **LIVE IN KOREA**
낯선 한국생활을 돕는 '선배들'
몽골에서 온 은지 씨와 러시아에서 온 리자 씨
46 **전문가기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모두
안전하게 사는 사회를 지향하며
48 **출입국 NEWS**
51 **Dear Friend**
마르코가 들려주는 북촌 한복체험기

2015년도 '올해의 이민자상' 수상자 김하종 신부

"안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안나의 집. 오후 3시 즈음이 되었을까? 노숙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들이 안나의 집을 찾아온 이유는? 밥을 먹기 위해서다. 하루에 안나의 집을 찾는 노숙인의 수는 하루 평균 500명이 넘을 정도라고.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와 더불어 희망을 선사하는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 신부는 2015년도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9년 째, 한결 같은 마음으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그를 만나보았다. 글 **박지연** 사진 **임정원**

노숙인들의 사랑방, 안나의 집을 아시나요

안나의 집은 1998년 7월 이래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저녁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요일별로 내과, 치과, 정신과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옷 나눔, 인문학 강좌, 법률상담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나의 집. 이곳이 좀 특별한 건 길에서 사는 노숙인들의 자활에 힘쓰며 노숙인들을 환영하는 드롭인센터라는 사실 정도랄까.

누가 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 안나의 집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김하종 신부. 그는 수더분한 곱슬머리에 파란 눈이 인상적인 이탈리아 사람이다. 오블라띠 수도회의 소속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수도회의 정신은 그의 모체다. 1990년, 한국에 첫발을 디딘 그는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운영하고, 독거 노인들을 위해 반찬 배달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때마침 1998년 한국에 경제위기가 오자 길거리 실직자, 노숙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는 국내 최초의 실내 무료 저녁 급식소인 안나의 집이 세상에 나온 계기가 되었다.

김하종 신부(보르도 빈첸조)는 국내 최초 실내 무료 저녁 급식소인 '안나의 집'을 세웠다. 소외된 이웃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단기 시설, 쉼터, 자립관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 탈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난독증으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낸 그는 2002년 한국난독증협회를 설립, 난독증 치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들은 왜 노숙인이 되었을까

김하종 신부는 노숙인에 대하여 갖는 편견들, '노숙인은 게으르며 노력을 안 한다'는 식의 사회적 시선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노숙인과 노숙인이 아닌 사람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노숙인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보고자 했지만 운이 도와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들은 경쟁에서 밀려났거나,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관심을 받지 못해 심리적인 상처가 큰, 자존감이 낮고 사회성이 부족하여 생활을 제대로 이어나가기가 힘겨운 사람들이다. 노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김하종 신부는 답했다. '인정', '사랑' 그리고 '희망'.

"한 심리학자가 발표하기를 인간은 40일 정도 금식할 수 있지만, 4일 동안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자살한다고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밥보다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요. 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매일 이야기합니다. 안나의 집을 찾는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잘 해주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라고요. 힘들고 지칠 때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와 고민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안나의 집 3층에는 30명의 노숙인들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다시 자립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일터로 향한다. 이들의 얼굴은 모두 환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안나의 집을 찾는 친구들에게 단순히 밥 한끼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친구들이 다시 일하고 싶다고, 시작하고 싶다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 저는 제일 행복해요."

아이들을 지키는 트럭 '아. 지. 트'

'아지트' 활동은 김하종 신부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아지트'는 아이들을 지키는 트럭의 준말이다. 안나의 집 자원봉사자들은 트럭 아지트를 타고 밤 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난다. 아이들에게 식사, 기초 물품, 쉼터 연계를 지원하고 상담, 의료, 성교육, 가출 예방 캠페인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활동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김하종 신부는 저녁 배식을 마치자마자 아지트로 달려나간다.

"대한민국의 가출청소년은 20만 명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가정문제나 부모의 학대로 길에서 살게 됩니다. 부모가 해주지 못한 부분은 사회가 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받는 것은 국제 권리입니다."

활동의 준비 단계에서 운영 비용의 문제, 인력 부족의 문제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했지만, 그는 추진했다. 문제만 논하다가는 시작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제점은 활동을 시작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는 일이었다.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요?"라고 김하종 신부는 묻는다. 요리를 좋아하면 음식을 나누고, 축구를 좋아하면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줄 수 있다. 자신의 재능을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그는 전한다.

Pickles

피클

4,500년의 역사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몸에~ 새콤달콤 피클

채소나 과일 등을 소금이나 식초에 넣어서 절인 서양의 대표 절임 식품인 피클. 미국에서만 하루 소비량이 520만 파운드일 정도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피클을 즐겨 먹는다. 피클의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한 맛은 식사 시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고, 개운한 뒷맛은 서양음식 특유의 느끼함을 덜어준다. 레시피는 양파, 피망 등 주재료에 따라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나 오이 피클이 대표적이다. 피클의 역사는 약 4,5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되어 기원전 2천년 경 티그리스 계곡으로 이주한 인도 원주민들이 오이로 피클을 만들기 시작했다. 기원전 1천년 경 무렵부터는 서아시아와 고대 이집트, 그리스 등지에서도 오이 피클을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이 내려온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이 피클의 치료효과를 주장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미모 유지 비결로 오이 피클을 꼽았다고 한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줄리어스 시저는 역시 피클을 즐겨 섭취했으며, 13세기에는 존왕의 향연에 피클이 주요리가 될 정도였다고 하니 피클의 역사는 이토록 화려하다. 피클의 세계 전파는 콜롬버스의 공이 컸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의 괴혈병을 막는 필수 비타민 공급원이었던 것. 미네랄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피클, 현재까지 꾸준한 사랑을 얻는 것은 당연지사다.

동양 소금절임 vs 서양 식초절임

야채를 절일 때 동양에서는 소금을, 서양에서는 식초를 주로 쓰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서양의 기후와 문화의 차이 때문이랍니다.
습도가 높은 동양에서는 곰팡이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소금을 씁니다. 소금은 삼투압 작용을 일으키는데, 야채가 머금은 수분을 제거하여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한답니다. 반면 식초절임은 단기간 보존에 주로 이용되는데, 이는 거주지를 자주 이동하는 서양의 유목문화에 어울린다고 볼 수 있지요.

Nabak-Kimchi

나박김치

잃어버린 입맛도 살리고
역병도 이기게 해준 국민 반찬! 나박김치

서양의 피클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매 끼니 때마다 한국의 식탁에서 꼭 만날 수 있는 반찬이 있으니 김치가 그 주인공이다. 메뉴를 가리지 않고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리는 것이 피클과 닮았다. 피클과 가장 유사한 김치를 꼽는다면 바로 나박김치다. 나박김치는 소금에 절인 배추 또는 무에 고춧가루로 색을 들인 양념 국물을 부어 발효시킨 대표 물김치다. 배추 또는 무를 나박나박 썰어 담근 김치라 하여 나박김치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지나, 실은 나박김치의 나박은 무의 한자명 나복에서 유래되었다.
신라시대부터 나박김치를 담가먹기 시작하였고, 조선시대의 의서 '간이벽온방'에는 중종이 역병을 이기기 위해 백성에게 나박김치 국물을 마시게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나박김치는 영양학적으로 뛰어난 효능을 지녔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폐 기능과 면역 기능 향상은 물론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다.
나박김치 역시 피클처럼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며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는 국민 음식이다. 깔끔하고 개운한 맛은 한국 음식 특유의 짜고 칼칼함을 덜어주고 사각거리는 식감은 식사의 즐거움을 더한다. 피클과 닮은 듯 다른 나박김치, 기분 좋은 봄날의 식사의 산뜻한 반찬으로 이보다 제격인 음식이 어디 있을까?

나박김치 레시피

재료: 배춧잎(3장), 무 1토막, 절임용 소금, 국물 재료(물 4컵, 소금 및 고춧가루 1/2스푼), 선택 재료(쪽파, 실고추, 마늘, 생강

1. 무 또는 배추를 나박나박 썰어 소금에 절인 후 헹군다.
2. 절인 무와 배추에 손질한 쪽파, 실고추, 마늘, 생각을 넣는다.
3. 국물을 붓는다.
4. 실온에 하루 정도 두었다가 냉장 보관 한다.

신선한 풍광과 이색적인 체험을 동시에~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단양여행

겨울과 여름 사이, 봄은 혹독한 추위를 온몸으로 품었다. 그리고 푸른 기량을 한껏 펼쳐낼 여름을 기다린다. 질긴 생명의 자락으로 넘실대는 봄날의 정취는 잔잔한 즐거움을 준다. 봄을 닮은 단양. 태고의 흔적을 품고서 아무런 동요도 없이, 자연의 순수함을 가뿐히 드러낸다. 굽이진 소백산과 남한강을 벗삼아 잔잔히 약동하는 봄날의 생기를 고스란히 전한다.

글 **박지연** 사진 **이영균**

Please recommend

니키타 구샤리 (인도네시아, 주부)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니키타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6살과 3살 두명의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말에 자동차를 타고 1박2일로 가족 여행을 가고 싶네요. 가 볼만한 여행지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특히 야외 소풍과 더불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ikita Kushari (Indonesia, Hausewife)

I am Nikita Kushari from Indonesia. I am married to Korean man and have two sons of 6 years and 3 years old. As the weather is becoming nicer, I would like to have a family trip for 2 days during the weekend. We want to drive. Can you please recommend good places to travel? It would be great if my kids can experience something nice along with picnic. Thank you.

Our recommendation!

〈공존〉에서 추천하는 봄날의 여행지는 '단양'입니다. 경기 지역에 사는 니키타 구샤리 씨의 가족이 단양까지 가는 데는 차량으로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단양을 두른 소백산맥, 차령산맥의 능선과 그 아래 굽이쳐 흐르는 남한강. 곡선의 여유가 한껏 실린 단양의 경치는 단연 한국적입니다. 또한 유람선 체험, 동굴 체험, 공예 체험, 국내 최대 규모의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풍성합니다.

The place I want to recommend in this spring is 'Danyang'. It will take 2 hours for your family to drive to Danyang because you guys live in Gyeonggi-do. In Danyang, you can see the ridge of Sobaek Mountains and Charyeong Mountains, Namhan River under the ridge and the scenery of Danyang town with beauty of curve or round. All of them are very Korean style. In addition, Danyang is full of various family experience sites such as cruise ship experience, cave experience, craft experience and the biggest freshwater fish aquarium in Korea.

강 속 여행, 한국에서 제일 큰 민물고기 전시관

단양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한 다누리 아쿠아리움.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민물고기 생태전시관이다. 국 · 내외 민물고기 187종, 총 2만 2천마리가 수조 안을 유유히 헤엄친다. 단양을 대표하는 민물고기인 쏘가리, 그 중에서도 황색으로 빛나는 천연기념물 황쏘가리가 눈길을 끈다. 1급수의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버들치도 보고 은어, 가물치, 철갑상어 등 이름도 생김도 다양한 강 속 생물들을 관찰한다. 고생대부터 생존해온 최대 380cm 길이에 육박하 '엘리게이터 가', 사람과 비슷한 치아구조를 가진 '인치어 파쿠', 아마존의 거대어 '피라루크' 등 희귀한 해외 어종도 만나본다. 거대한 터널을 지날 때는 물 속으로 들어온 듯, 사방으로 펼쳐지는 물고기떼의 움직임이 신비롭고 환상적이다. 1층으로 올라오면 낚시 박물관이 있는데, 이 곳에는 다양한 낚시 장비와 영상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자석 낚시 체험 코너도 있다. 월척을 낚으려는 아이들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단양하면 마늘이지

한국 음식에는 유독 마늘이 많이 들어간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나물을 무칠 때, 각종 반찬 등에서 마늘은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의 식재료다. 그리고 단양의 마늘은 대한민국 지리적 표시 29호로 등록되어 그 우수함을 두루 인정받고 있다. 마늘의 고장 단양, 전 지역이 석회암 지대로 되어 있는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 토양은 마늘 재배에 최적이다. 게다가 밤낮의 일교차가 큰 단양의 기후는 달고 향긋한 단양 마늘만의 품격을 한층 높인다. 10월 경, 단양 육쪽마늘축제가 시작되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단양의 식당들은 서로 앞다투어 마늘을 내세운 메뉴를 선보인다. 마늘 돌솥정식, 마늘 떡갈비, 마늘 불고기 등 그 종류가 수 가지다. 이번 여행의 추천 메뉴는 마늘 돌솥정식이다. 돌솥 곤드레밥과 더덕, 수육 등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한 밥상에는 주인 아주머니의 정다운 마음이 양껏 담겼다. 갖은 반찬 사이 사이, 여러 종류의 소스로 버무려진 마늘 장아찌가 먹음직스런 자태를 드러낸다.

DAY 1

- 다누리 아쿠아리움
- 단양팔경
- 방곡도예촌

다누리 아쿠아리움

관람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휴관/ 석가탄신일, 추석연휴 정상운영
관람료: 어른 8,000원
어린이/65세 이상 5,000원

한 폭의 산수화, 그 안으로 풍덩

조선 시대 많은 문인들이 단양의 비경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단양 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은 단양을 매우 사랑했다. 단양 8경의 탄생은 그로부터 시작한다. 이황은 산과 강이 빚어내는 수려한 절경에 감탄하여 8경을 정하고, 직접 이름을 붙였다. 도담삼봉, 석문, 사인암,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구담봉 그리고 옥순봉이다. 단양의 8경을 하나 하나 둘러보는 것도 단양 여행의 묘미가 될 것이다. 조선시대 대표 화가 김홍도의 그림으로 유명한 옥순봉과 겸재 정선이 화폭으로 담아낸 구담봉을 감상하러 장회나루, 충주호 유람선이 있는 곳으로 향해보자. 유람선이 물길을 시원히 가르고, 선선한 강바람은 끈적이지 않아 좋다.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의 '철썩' 소리가 마음을 간질이며 출발의 설렘을 더한다. 선상 유일한 간식인 팝콘은 보너스. 구담봉, 물 속에 비친 바위의 형상이 꼭 거북이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옥순봉의 '옥순'은 희고 푸른 빛을 띤 바위들이 힘차게 솟은 모습이 대나무 싹 같이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친절한 승무원의 재미난 해설을 듣다 보면 한 시간이 지루할 틈이 없다. 마주하는 다양한 암석들은 성모마리아, 송이버섯 등 제각각 이름이 있고 이야기를 품었다.

날으는 갈매기의 부드러운 날갯짓은 여행객의 시선을 잡아 끈다. 신선이 된 듯 아니면 화가의 화폭 속으로 풍덩 들어온 듯, 세상과 유리된 여행객은 한아름의 여유를 만끽한다. 살아있는 자연을 체험한다.

도자기 빚는 방곡 도깨비마을

단양은 예부터 도자기 생산지로 유명하다. 도자기 제작 원료인 사토와 유약의 원료인 물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 특히 물토는 최상급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도깨비가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하여 도깨비마을이라고도 불리우는 방곡도예촌. 이 곳에는 전통 문화를 계승해나가는 도예가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여 600년 전 방식 그대로 도자기를 구워낸다. 도자기체험관으로 가면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를 빚고 구워내는 과정을 생생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체험도 해볼 수 있다. 흙의 촉촉한 질감을 느끼고 물레를 직접 돌려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개성만점 도자기. 구워진 완성된 도자기는 택배로 안전하게 집까지 배달된다.

방곡 도깨비마을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체험료 : 10,000원(예약 필수)

돌집식당

위치: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2로 11
메뉴: 곤드레 마늘정식(특) 20,000원 곤드레 마늘정식 17,000원 마늘떡갈비(대) 25,000원 마늘육회 35,000원

출출할 땐 구경시장으로

단양군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 단양 특산물이 육쪽마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이 곳의 유명한 먹거리로는 흙마늘 닭강정, 마늘만두, 흑마늘빵 등이다. 출출한 배를 달래기에 제격.

위치: 단양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천태종

6세기 중엽 중국에서 시작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중창되어 선·교종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경전을 통해 교리를 익히고 참선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진리를 깨우치는 '교관겸수'의 정신을 전한다.

DAY 2

- 활공장
- 천동동굴
- 온달세트장
- 구인사

단양의 하늘을 날다

산악 지형인 단양은 익스트림 레포츠가 발달해 있다. 4륜 오토바이(ATV), 래프팅도 있으나 최고의 항공스포츠인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기에 제격인 곳이다. 이른 아침, 활공장을 찾는다. 하늘을 가르고,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경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스포츠인 패러글라이딩! 수많은 여행객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러 단양을 방문한다. 하늘에서 맛본 단양의 정취는 단연 한국적이다. 굽이쳐 흐르는 남한강을 낀 단양의 8경이 눈 아래로 펼쳐진다. 전문 조종사와 함께하니 든든하고 안전하다. 설레는 마음으로 단양의 봄을 마음껏 품는다.

4억 5천만년의 시간을 들여다보다, 동굴 체험

만화나 영화 속에서만 봤던 동굴. 으스스하지만 아이들의 탐험심을 마구 자극한다. 단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굴을 보유했다. 그 수는 남한 전체 1000개 중 총 181개.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로 손꼽히는 고수동굴,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종유석과 석순이 펼쳐진 천동동굴 등 동굴마다 특색이 있다. 안전모 착용은 필수, 어두컴컴한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친다. 그리고 생전 본 적 없는 신비로운 형상의 종유석과 석순, 이 둘이 만나 기둥을 이룬 석주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4억 5천만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경이로워지는 순간, 시간의 흐름에 그대로 몸을 맡긴 자연의 신비 앞에서 경건해지는 기분이다.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했기에, 어떤 구간은 허리를 깊이 숙여 통과해야만 한다. 아이들은 마치 탐험가가 된 듯, 그 발걸음은 호기심에 겨워 데굴거린다.

패러글라이딩 즐기기

바람이 약하고 안정적으로 부는 오전 시간 혹은 늦은 오후나 상승기류가 형성되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를 추천한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사랑이 깃든 곳

바보온달에서 장군으로 거듭난 고구려의 장수 온달장군. 그가 장군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던 평강공주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 온달 관광지는 온달전시관, 온달산성, 온달동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온달에 관한 사료와 해설이 마련된 온달전시관에 들어가면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드라마 세트장. 〈연개소문〉, 〈태왕사신기〉 등 고구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사극 촬영지다. 드라마 소품들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화려한 건축물 저 편으로는 옛 모습 그대로 지어진 저잣거리도 거닐어 볼 수 있다. 이후 천천히 온달 산성에 이른다.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단양의 경치가 일품이다. 이 곳에는 신라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을 쌓고, 적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온달왕자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선선한 바람이 이는 지금의 분위기는 그저 평화롭기만 하다.

소백산 산세와 어우러진 영검한 절, 구인사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 사찰, 전국 140개나 되는 사찰을 관장하는 구인사다. 1만 명이 동시에 상주할 수 있는 이 곳은 일주문에서 대조사전에 이르기까지 50여 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그 규모가 웅장하고 압도적이지만, 1945년 창건 당시에는 작은 초가삼간에 불과했다고. 구인사는 간절히 소원을 빌면 그것이 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검한 절로 알려져 있다. 너도 나도 마음 속 깊숙이 감춰둔 소원을 꺼내어 되뇌어본다. 어느새 도달한 대조사전은 구인사에서 가장 높은 장소다. 기와와 소백산 산세가 어우러진 구인사의 전경에 잠깐 취해 본다. 내려가는 길, 깨끗한 공기와 지저귀는 새의 소리로 마음이 가뿐해진다.

She is...

일본 출생, 한국 생활 18년차.
아이꼬 씨는 1999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성남시에 정착했다.
한국에서 일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그녀는
작년 5월부터 남한산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외국인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남한산성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기분 좋은 기억을
선사하고 싶다는 그녀. 즐거운
해설을 위해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아이꼬 씨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두 아들과 든든한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오래도록 살아가고 싶다.
남한산성의 멋은 물론 한국의
'정(情)'이 좋은 그녀의 한국 사랑은
나날이 커져만 간다.

Hi, I'm Yanagi Aiko from Japan. I've been working as a culture commentator explaining history and global value of the World Heritage Namhansanseong since last year. I've lived in South Korea since 1999 getting married to Korean husbands. Although I challenged it by chance, I'm very proud of myself helping people all over the world know Namhansanseong containing spirit of humanity. When you come to here, you can be fascinated with the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and its scenery. I hope many people love the space of Namhansanseong and my commentary is helpful to visitors looking for here.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남한산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남한산성 문화해설사 야나기 아이꼬 씨

글 **박지연** 사진 **이영균**

남한산성 문화해설사가 일본인이라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지금 제가 문화해설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저도 신기해요. (웃음) 한국에서 살며 일본어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끼리 모여 교류하는 모임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보았죠. 마침 친구 한 명이 외국어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외국어센터에 가봤는데, 남한산성 외국인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수강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과정을 수료하면 문화해설사로 일할 수 있다고 하니,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해설사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리고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저는 일본어 해설사이고요. 일본인 관광객 분들을 대상으로 남한산성의 행궁을 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각 건물에 담긴 에피소드와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남한산성이 지닌 역사와 가치도 전하고 있고요.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면 공부를 하고 시험도 봐서 문화해설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문화적인 지식이 짧았고, 공부한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았죠. 앞으로도 공부해야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남한산성의 가치는?

남한산성은 한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성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요지에 위치해 있고, 임시 수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정비된, 중요한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곳은 자연이 참 아름다워요. 특히 이 계절, 봄이 되면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공기도 좋아서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돼요. 남문 쪽으로 가면 '아 예쁘다' 바로 이런 느낌이 드실 거에요.

아이꼬 씨가 추천하는 남한산성의 명소는?

제2남옹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옹성은 적군이 직접 성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성벽을 둥그렇게 쳐서 만든 성곽 부대시설이에요. 대포를 설치해서 쏠 수 있게 만든 포루가 있어요. 이 곳에 오면 적군과 대치했던 역사의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산성의 역할과 의미를 소개하는 데 제격인 곳이에요.

남한산성을 잘 감상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문화해설사를 찾아주세요~! (웃음) 실제로 해설사의 설명이 없다면 여기나 저기나 모두 똑같게 보일 거에요. 저도 그랬으니깐요. 지루할 수도 있죠.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라면 같게만 보이던 성벽의 모습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에요. 건물, 성벽 등 모든 곳에는 이야기가 서려 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남한산성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거에요.

일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의 해설 덕분에 남한산성을 잘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해 줄 때, 만나서 반가웠다며 관람객이 기뻐해줄 때 '아, 이 일 하기를 정말 잘 했구나'라고 느껴요. 한 번은 저와 사진을 함께 찍은 관람객 한 분이 메일로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답장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요. 남한산성이 그 분에게 좋은 기억으로 간직된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좋았죠.

한국에 왜 왔나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1999년도부터 한국에 살게 됐어요. 현재 남편과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인 아들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한국 적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언어죠. 에피소드가 많아요. 한번은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대문 밖에 나와 계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돌아가'라고 들은 거죠. 그래서 집으로 되돌아갔는데 몇 시간 후 깨달았죠. '돌아가'가 아닌 '들어가'인 것을요. 또 한번은 시어머니로부터 김치통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낮에는 바쁘니 저녁에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녁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김장을 다 해놓으신 거에요. 저는 김치만 받아왔죠. 형님이 김치통을 가져오라는 말은 오늘 김장을 할 것이니 같이 하자는 의미였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주 방문하나요?

여권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일로 오래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했었죠. 그 당시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 듣기로는 이제 방문자예약제로 제도가 바뀌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편리해진 것 같아요.

고향 일본이 그립지는 않나요?

그립죠.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됐을 땐 1년에 한 번 정도는 갔는데 한번 갈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점점 공백이 길어지더라고요. 2년 전 6년 만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너무 좋았죠. 그래도 어머니께서 가끔씩 한국에 오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본의 가족들 얼굴을 보는 편이에요. 나중에 어머니께서 한국에 오시면 제가 남한산성을 직접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아이꼬 씨가 생각하는 한국의 매력은?

한국은 사람 간의 '정'이 많다고 느껴져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일본에서는 나는 나고, 우리 집과 다른 집은 정확히 구분돼요. 그런데 한국은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친한 사이에서는 스스럼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한국 사람들은 진짜 친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곧 남한산성의 행궁 뿐만 아니라 성곽에 대해서도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설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성곽길 해설에 대한 시험을 치러요. 합격이 되야 할 텐데…. 공부 열심히 했어요. (웃음)

아이꼬 씨에게 남한산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면서 한국 역사를 알게 되었고, 일본의 역사도 새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요. 남한산성은 인류가 지켜내야 할 문화유산이잖아요. 남한산성이 연결고리가 되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간의 교류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듯이, 저의 작은 역할이 두 나라 사이를 돈독히 만드는 데에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라요~!

Her choice

야나기 아이꼬 씨가 추천하는

일본의 참맛 에키벤(えきべん)

"에키벤 데스~!" 일본의 에키벤은 열차 안이나 역에서 승객에게 판매하는 도시락이에요. 각 지방의 특산물과 계절별 재철 식재료를 듬뿍 담아서 만든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고 매우 특색이 있죠. 가짓수가 무려 2500종이나 된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도 정말 좋아해요. 인기가 많아 해마다 에키벤 경연대회가 있을 정도에요. 오직 에키벤을 먹기 위해 기차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죠. 사찰 주변에서는 사찰음식, 왕궁이나 영주의 성 주변에서는 귀족들이 먹던 음식을 즐길 수도 있답니다. 일본에 간다면 에키벤을 먹고 일본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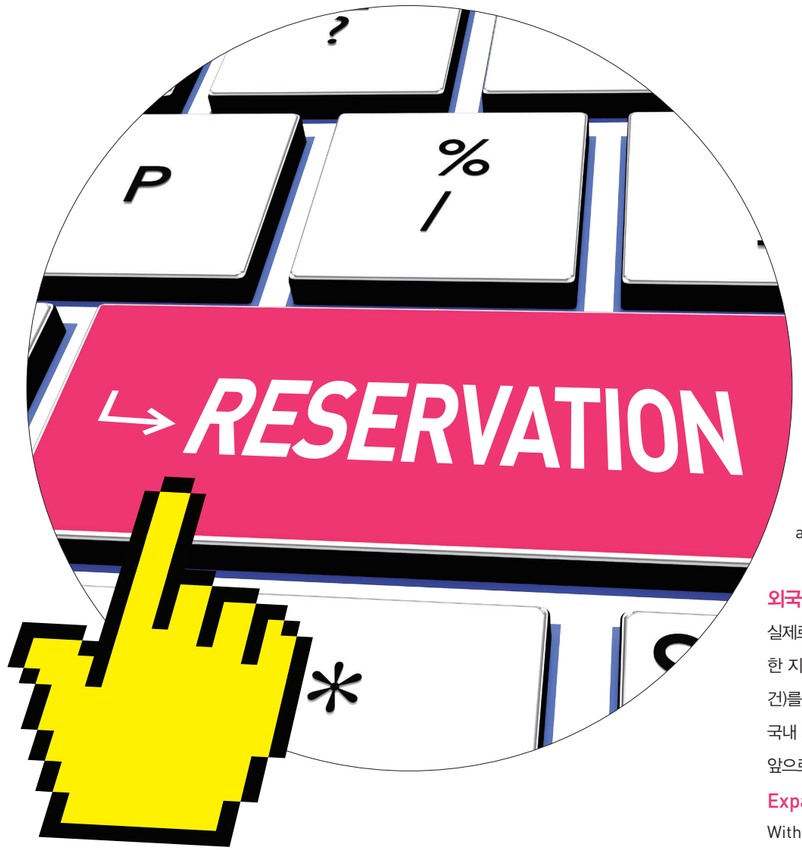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로 단 10분 만에 민원 해결 OK!

Make Online Reservations and Spare Just 10 Minutes to Apply!

외국인 민원 평균 대기시간 3시간. 북적북적 가득 찬 외국인들로 마치 동네시장을 방불케 했던 민원실의 풍경.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죠? 체류 외국인 여러분들께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 이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신청하는 편리함, 10분 안에 민원이 해결되는 신속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답니다.

"Applicants waiting for three hours." "Crammed with visitors." These are the familiar scenes that you can see at immigration offices and it is only easy to imagine the inconvenience they may have caused to you. However, now you can use our expanded visit reservation services and we encourage you to take full benefits of it. As the service allows for online reservation where you can conveniently arrange a date and time that you want in advance, you can enjoy faster application services within 10 minutes.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란 어떤 제도?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는 민원 업무가 필요한 국내 체류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을 통하여 먼저 예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 혼잡이 극심한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돕고자 올해 2월 1일부터 수도권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 서울남부, 수원, 인천, 세종로, 안산)에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가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일 평균 민원인이 2,500명에 육박해 대기시간만 평균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그동안 국내의 많은 체류외국인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방문예약제도는 방문예약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특정 시간대에 민원이 몰리는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민원을 보는 날짜와 시간을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 자동 분산시킴으로써 민원처리 대기시간을 기본 3시간에서 평균 10분 안으로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What Is the Visit Reservation Service?

The visit reservation service enables applicants to make an online reservation befor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to apply. The service was expanded on Feb. 1, 2016 to facilitate work processing of the six immigration offices in the Seoul Capital Area troubled by a massive influx of applicants (Seoul, Southern Seoul, Suwon, Incheon, Sejong-ro and Ansan).

As close to 2,500 applicants visit the immigration offices in the Capital Area a day, applicants had to wait for three hours on average in the past and that caused huge inconvenience to foreign residents in Korea. However, with the expanded online reservation services, applicants with a reservation receipt can now apply at an exclusive counter and that helped to manage the flow of peak-hour applications. The online reservation system evenly arranges dates and times for application, and as a result, the average waiting time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to 10 minutes.

알아두세요!

6개의 해당 사무소에서는 방문예약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예약 없이 방문했을 경우, 재방문하거나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사전 방문예약제를 꼭 신청하세요!

The six immigration offices process reserved applications first. If you visit an immigration office without reservation, you may fail to apply and re-visit the office, or wait for a long time to apply. Therefore, please ensure that you make a reservation before visiting the immigration office.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 시행 후 이용률 쑥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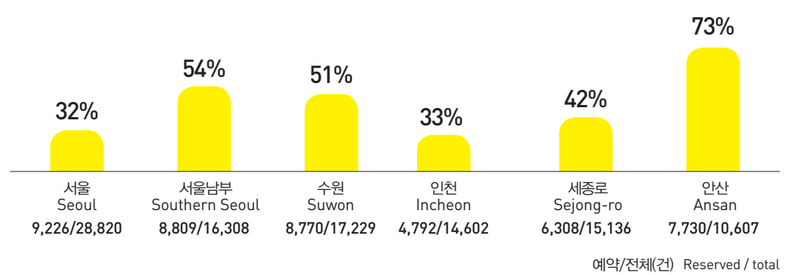
실제로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 결과, 시행 전 4%에 못 미치던 방문예약률이 44%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방문예약을 통한 외국인 체류민원의 평균 예약처리율 역시 44.43%(4만 5635건)를 기록하여 작년 2015년 한해 평균 3.5% 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내 체류외국인 급증과 함께 출입국 민원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방문예약제도를 이용하는 체류외국인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panded Visit Reservation Service and Soaring Use Rates

With the broader operation of the reservation services, the use rates, which once stood below 4%, jumped to 44%. To put it into context, the reservation rates posted 44.43% (45,635 applications) from Feb. 1 to March 21 this year, a significant increase from the average annual use rates of 3.5% last year. As an increasing inflow of foreign residents is likely to send up the demand for applications, more and more applicants are expected to use the service down the road.

6개 출입국사무소별 방문예약을 통한 외국인 체류민원 처리 현황 (2016년 2월 1일 ~ 3월 21일)
Reservation Rates by Immigration Offices (From Feb 1, 2016 to March 21, 2016)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 신청은 어디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방문일과 방문시간대를 입력하고 예약증을 출력해 예약 당일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출입국 민원 업무를 신속히 볼 수 있습니다.

Where can I make online reservations?

You can make a reservation at HiKorea (www.hikorea.go.kr) befor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You can enter the date and time, and print a receipt from the site. When you visit the immigration office on the arranged date with the receipt, you do not need to wait to apply.

놓치지 말자! 외국인을 위한 하이코리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자민원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외국인들의 각종 민원을 민원실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하이코리아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방문예약제와 더불어 전자민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민원창구의 혼잡이 더욱 크게 개선되고, 행정효율성이 증대되어 체류외국인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공서비스

포탈 Portal	전자민원 Online application
• 사증, 체류자격 및 입출국 절차 안내 •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등 생활편의정보 • 외국인 투자 정보 및 투자 상담 • 외국인 고용허가제 안내 • Information on visas and statuses of stay, and entry and departure procedures • Information on residence, transportation, education, healthcare, culture, tourism, etc.	• 방문예약 • 재입국허가 • 단기체류기간 연장허가 • 장기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신고 • 방문취업(H2)체류자격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신고 • 사업장 변경신청 • Visit reservation • Re-entry permit • Extension of stay period for short-term status holder • Extension of stay period for long-term status holder • Extension of stay for departure • Notification of changes in foreign employee/trainee • Notification of change of residence • Commencement of work for H-2 status holder/Notification of changes in workplace

***체류 민원?**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외국인 체류업무

Avaliable online applications: alien registration, extension of stay period, change of status of stay, and other application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cluding notification.

Do Not Miss HiKorea, an e-Government web-site for foreigners!

The current electronic application services at HiKorea will be expanded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so as to allow applicants to apply for broader scope of applications without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Once the online application services are well-established along with the visit reservation service, it will contribute to easing applicant traffic at counters and improv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as a result, we will be able to provide quality service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전자민원을 이용하는 체류외국인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는 *체류민원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대폭 높이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하이코리아를 통해 체류기간연장이나 변경허가를 신청해서 법정수수료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답니다~!
To encourage more foreign residents in Korea to use online application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repared a revision plan to raise discount rates for online *application fees from 10% to 20%.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you can enjoy the 20% discount offer for applications filed at HiKorea such as the extension of stay period or change of status of stay.

온라인 민원신청 수수료 인하 안내 (금년 하반기 시행 예정)
Revised fees for online applications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in the second half of 2016)

구분 Application type (Unit: KRW)	현행 〈해당수수료의 10% 할인〉 Current (10% discount)	개정(안) 〈해당수수료의 20% 할인〉 After revision (20% discount)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 원 3만 원(결혼이민 체류자격) Extension of stay period 60,000 30,000 (for Marriage Migrant status holders)	5만 4천 원(6천 원 할인) 2만 7천 원(3천 원 할인) 54,000 (down 6,000) 27,000 (down 3,000)	4만 8천 원(1만 2천 원 할인) 2만 4천 원(6천 원 할인) 48,000 (down 12,000) 24,000 (down 6,000)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 원 20만 원(영주 자격변경) Change of status of stay 100,000 200,000 (change to Permanent Resident status)	9만 원(1만 원 할인) 18만 원(2만 원 할인) 90,000 (down 10,000) 180,000 (down 20,000)	8만 원(2만 원 할인) 16만 원(4만 원 할인) 80,000 (down 20,000) 160,000 (down 40,000)
재입국 허가 단수: 3만 원 복수: 6만 원 Re-entry permit Single: 30,000 Multiple: 60,000	단수: 2만 7천 원(3천 원 할인) 복수: 5만 4천 원(6천 원 할인) Single: 27,000 (down 3,000) Multiple: 54,000 (down 6,000)	단수: 2만4천 원(6천 원 할인) 복수: 4만 8천 원(1만 2천 원 할인) Single: 24,000 (down 6,000) Multiple: 48,000 (down 12,000)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작지만 탄탄한 조직력, 평택출장소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법. 이제 개청한지 3개월이 넘어가는 평택출장소는 조직이 원활히 굴러가기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여념이 없다. 정신 없고 바쁜 와중에도 단 17명의 직원들은 무리 없이 업무를 처리한다. 민원인들의 편안한 미소, 바삐 움직이는 직원들의 눈과 손을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글 **김경주** 사진 **이영균**

평택출장소의 새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1월 28일 수원출입국사무소 산하 평택출장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택출장소 개청 이전에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 남부권의 유일한 체류지사무소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원사무소는 매일 혼잡하여 사무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경기권 외국인 주민들이 출입국사무소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외국인 주민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출장소를 단장한 것입니다.

평택출장소는 오산 미 공군 기지 내 오산출장소를 확대하여 개청한 출장소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출입국관리소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평택출장소가 생겼다고 해서 오산출장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산 미군 공군기지 내에는 평택출장소 소속의 심사인력(3명)이 별도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업무를 이어갑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공항심사만 300건을 처리하고 SOFA(한미행정협정) 체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출장소는 두 개의 사무실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오산출장소의 맥을 이어가면서 새롭게 시작한 평택출장소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유일무이한 출장소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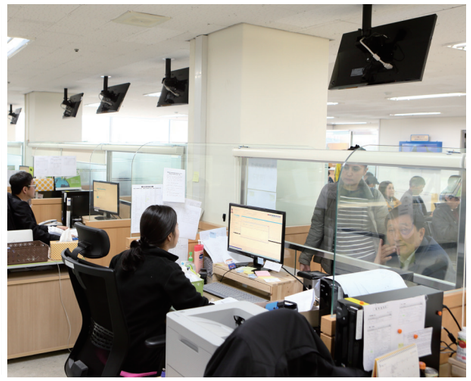
평택출장소는 평택, 안성, 오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약 5만 명의 외국인을 관리합니다. 관내에 다수의 제조업체가 자리하고 있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민원인이 대다수이며, 9개 대학이 위치하여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도 많이 찾아옵니다. 출장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18명의 이민자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분들이 매일 순번대로 통역과 민원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안락하게, 민원인이 편리하게

3층에 위치한 체류과에 먼저 가보았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업무를 보기 위한 외국인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시간인 아침 10시 30분에도 민원실은 순번을 기다리는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쉬는 노무자들이 많을 거에요. 쉬는 날을 이용해 출장소를 찾기 때문에 이런 날은 더욱 민원인이 많죠." 출장소를 안내해주던 정광성 반장도 대기하는 민원인 수를 보며 놀란 눈치였습니다.

쭉 둘러보니 오랜 시간 기다리는 민원인들을 위해 안락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넓은 창 쪽을 볼 수 있도록 놓인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부락산을 보니 마음이



뚫리는 기분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민원인들이 푸르른 산을 보며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쪽 벽면을 채운 커다란 게시판도 걸려있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2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하고, 민원실을 안내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또 하나 놀란 것은 민원실 한쪽에 위치한 수유실이었습니다. "결혼이민자들도 꽤 찾아오는데 아기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을 위한 수유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평택출장소를 따듯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니 조사 · 심사과가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사범을 처벌을 하는 곳이니만큼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긴장한 듯한 얼굴을 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외국인들을 보니 엄격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사범들을 정당하게 처벌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조사 · 심사과는 공정하게 사범들을 벌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발전하는 출장소가 되기 위해

개청한지 3개월 된 출장소가 이렇게 많은 일을 소화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환경미화를 진행했다니 놀라웠습니다. 평택출장소 직원들의 열정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출장소는 하루 평균 300건을 처리하는데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면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능력 있는 직원을 확보했죠. 직원 간 업무 교류를 활발히 하여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김문식 소장은 직원들의 업무처리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철 과장은 직원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신설 사무소라 업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 휴식시설을 만들고 복지에 신경 썼죠. 앞으로 직원들이 다시 일하고 싶은 출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평택 출장소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여 조직에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 이끌고 밀어주며 다독이는 직원들이 있기에 앞으로 더욱 발전해 갈 평택출장소가 눈에 그려졌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손발을 맞춰가며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들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김문식 소장은 다시 한번 직원들이 노고를 언급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출장소에 애정이 깊은 직원들. 모두가 행복한 평택출장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Mini Interview

저와 같은 외국인들을 도와줄 수 있어 기쁩니다

왕워메이(王玉梅, 중국)

한국에 온지 10년 차에요. 평택 출장소에서 자원봉사로 일한 지 2달 정도 됐죠. 친구의 소개로 출장소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고생했던 생각을 하니 저와 같은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 생활의 모든 것이 낯선 외국인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껴요. 평택출장소에는 사람이 항상 많은데 제가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서, 준비하는 서류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싶네요.

"개청한 지 어느덧 3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간 새로 전입오신 분도 있고,
우리 소에서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은 호흡을 맞춰가야 할 게 많지만,
합심해서 체계를 잡아가도록
서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성 반장

"사증 업무 상 여러 민원인을 만나게 됩니다.
민원인들의 요청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지만,
민원인의 관점에서 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정 상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황지원 계장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이루어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상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철 과장

이천 년 전,

한반도 가야국의 수로왕과 인도공주의 국제결혼 이야기

글 **변지선** 한국구비문학회 연구이사, 부산가톨릭대 트리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구비문학회
한국구비문학회는 1993년에 창립되어 계절마다 구비문학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구비문학의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정기 연구발표회, 학회지 간행, 자료집 및 연구서의 간행을 행한다.

이천 년 전,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지방에는 아직 나라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내려왔다. 줄 끝에 달린 금합에서 여섯 개의 알이 나왔고 그 알에서 여섯 명의 사내아기가 나왔다. 그 중 한 아기가 태어난 지 열흘이 되자 어른보다 키가 더 자랐고 나라를 만들어 왕이 되었으며, 그 이름을 수로라 했다. 나라 이름은 '대가락' 혹은 '가야'라고 불렸다.

어느 날 신하들이 수로왕에게 배필이 없으니 신하들 중 한 명의 딸과 결혼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수로왕은 거절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이곳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니 나의 결혼도 하늘의 명령이 있을 것이다."

수로왕은 유천간이라는 신하를 김해의 남쪽에 있는 '망산도'라는 섬에 가서 기다리게 했다. 문득, 서남쪽에서 붉은 돛과 붉은 기를 단 배가 오고 있었다. 수로왕은 매우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망산도에 도착한 배를 맞이하라고 했다. 이에 신하들은 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수로왕에게 가려 했으나 배 안에 탔던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과 본래 모르는 사이인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

신하들이 왕에게 여인의 말을 전하자 왕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대궐 가까운 곳에 있는 산기슭에 임시궁전을 만들어 그 여인을 기다렸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임시궁전과 가까운 별포나루에 배를 대고 육지로 올라왔다. 여인은 자기가 입었던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여자의 일행은 잉신(여자가 시집 갈 때 데려온 신하) 두 부부와 노비를 합쳐 20명이었다. 이들이 가져온 금으로 수놓은 비단과 금은주옥, 구슬로 만든 패물은 모두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가락국왕 수로는 하늘이 내려준 성스러운 분이다. 새로이 나라를 다스림에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어 배필이 되게 하라.

수로왕은 그 여인을 직접 맞이하여 함께 임시궁전으로 들어갔다. 수로왕은 신하들에게 여인이 데려온 일행을 잘 대해주라고 하였다. 여인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유타국(중인도에 있던 고대의 왕국)의 공주인데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지난 5월, 본국에 있을 때 부왕과 모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꿈에 하늘의 상제를 뵈었는데, 상제께서 '가락국왕 수로는 하늘이 내려 보내어 왕위에 앉게 했으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분이다. 또 새로이 나라를 다스림에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배필이 되게 하라'는 말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 가셨다고 합니다. 꿈을 깨었으나 상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니 저에게 그 자리에서 당신들과 작별하고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를 타고 멀리 신선이 사는 곳에서 열리는 좋은 과일를 찾고, 하늘로 가서 3000년에 한 번 씩 열리는 복숭아를 찾아 모양을 가다듬고 감히 왕을 가까이 뵙게 되었습니다."

수로왕이 대답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신성하여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을 이미 알았으므로 신하들이 왕비를 맞으라는 청을 따르지 않았소. 이제 현숙한 공주께서 이렇게 스스로 오셨으니 나에게는 참으로 다행이오."

드디어 두 사람은 결혼하여 두 밤을 지내고 하루 낮을 지냈다. 그리고 허황옥과 그 일행이 타고 왔던 배를 돌려보냈는데 뱃사공 15명에게 쌀 10석과 베 30필을 주어 보냈다. 8월 1일에 왕은 왕비와 대궐로 돌아왔다. 왕비는 궁중에 거처하게 하고, 잉신 내외와 그들의 노비들에게는 비어있는 두 집에 나누어 살게 했다. 나머지 따라온 자들도 20여 칸이나 되는 집 한 채를 주어 살게 했다. 그리고 날마다 물품을 풍부하게 주었으며, 그들이 싣고 온 진귀한 물건들은 창고에 두어서 왕비의 사시 비용으로 쓰도록 했다.

그 후 왕비는 수로왕과 함께 150년 동안 살며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했고 아들 10명을 낳았다. 맏아들은 수로왕의 성인 김해 김 씨를 이었다. 왕비는 아들 중 2명에게 왕비의 성인 허 씨 성을 쓰게 해달라고 수로왕에게 부탁했다. 수로왕은 이를 허락하여 이 아들들은 김해 허 씨가 되었다. 나머지 아들들은 스님이 되었다.

이야기 들여다보기

수로왕의 왕비인 허황옥은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로서 머나먼 한반도의 가야로 시집온 공주이다. 그 옛날, 인도와 한반도가 어떻게 왕래했을까? 허황옥은 5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출발했다고 한다. 허황옥이 가야 땅 망산도 부근에 도착하여 수로왕과 만나 결혼하고 두 밤과 하루 낮을 지낸 후인, 8월 1일에 부부가 대궐로 갔다고 하니 허황옥은 약 석 달에 걸친 여행을 한 셈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뱃길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게 마련인데 허황옥은 이때 배에 파사석탑을 싣고 왔다고 한다. 이는 수신의 방해를 피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준비한 탑이다. 허황옥은 금으로 수놓은 비단을 비롯한 다양한 비단과 귀금속 장신구를 가야로 가져왔다. 뛰어난 양잠기술과 직조기술, 귀금속제련과 가공의 기술 없이는 가져올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 가야의 수로왕은 허황옥이 타고 온 배를 돌려보내면서 뱃사공들에게 각각 쌀 10석과 베 30필을 주었다. 당시 가야의 산물은 쌀과 베였고 수로왕과 허황옥의 결혼을 통해 양국의 문물이 교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허황옥은 잉신 부부와 노비, 뱃사공을 포함하여 약 35명을 데려 왔다. 잉신 부부와 노비는 가야에 남았고 잉신 부부는 두 딸을 낳았다고 한다. 허황옥은 아들 10명을 낳았는데 자신의 성이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 수로왕에게 부탁하여 두 아들에게 자신의 성인 허 씨를 잇게 했다고 한다. 그녀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선진문물만 가져온 것만이 아니라 인도 아유타국에서 발원한 자신의 뿌리와 문화가 한반도에서도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렇듯 허황옥은 수로왕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의 문물 및 문화를 교류시킨 장본인이라 할 수 있겠다.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한국말 "떨어지다"

봄과 함께 찾아온 로맨스 드라마 〈태양의 후예〉. 대한민국은 물론 중국 열도를 '심쿵'하게 만든 이 한국 군대식 로맨스 드라마는 앞으로 미국, 유럽,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등 총 32개국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은 글로벌 드라마 〈태양의 후예〉. 명장면 국어사전과 함께 드라마 속 명장면을 다시 느껴보고, 그 속에 담긴 한국어도 배워볼까요? 글 박지연 사진 출처 KBS

의료봉사단 팀장인 강모연(송혜교)과 특전사 유시진(송중기)은 차를 타고 가던 중 지뢰를 밟고 맙니다. 다행히 유 대위의 대처로 지뢰밭에서 탈출한 둘은 히치하이킹에 성공해 트럭 짐칸에 탑승합니다. 안도의 기쁨은 잠시, 유 대위는 우르크를 떠나 곧 한국으로 가게 되는 의료팀 명단에 강모연이 있을까 봐 불안합니다. 강모연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픈 유 대위가 강모연에게 묻습니다.

"우리 떨어집니까? 곧?"

'떨어지다'의 쓰임은 정말 많습니다. 먼저 주로 쓰이는 '떨어지다'의 뜻을 살펴볼까요? ①붙었던 것이 떼어지다. ②물리적 공간에서 어떤 대상이, 또는 수치나 값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다. ③명령이나 허락이 내려지다. 사용 예를 순서대로 들면 소매에서 단추가 떨어지다,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다, 출발 명령이 떨어지다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 ④시험이나 선거에서 뽑히거나 합격하지 못할 때에도 ⑤공간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될 때에도 '떨어지다'가 자주 쓰입니다. 사용 예를 들면 각각 그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다, 편의점은 지하철역에서 500미터 떨어져있다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 대위가 강모연에게 물었던 "우리 떨어집니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때의 '떨어지다'는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진다는 뜻입니다. 강모연과 헤어지기 싫은 유 대위의 마음이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른 예로는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한창 울었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죠. '떨어지다'의 흥미로운 표현들이 있어 모아봤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한잔을 마시면 감기가 뚝 떨어질거야(병이 없어지다)', '그 사람에게서 정이 떨어졌어(감정이 줄거나 없어지다)', '긴장해서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말이 입 밖으로 나오다)', '커피 한잔을 팔면 나한테 400원이 떨어진대(이익이 생기거나 남다)', '용돈이 다 떨어졌는데 어쩌지?(돈이나 물건이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다)'

참 많죠? 떨어지다의 쓰임은 아무리 사용해도 떨어질 줄을 모르는데요. 그 사용이 무궁무진합니다. 뜻이 너무 많아 복잡하다고요? 이토록 쓰임새가 다양하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떨어지다'의 의미를 곱씹어 익혀보세요. 어느새 한국말의 대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떨어집니까? 곧?
我们要分开吗？很快就要分离吗？

'떨어지다'这个单词的用处非常多。首先观察一下主要使用的意义。①粘贴在一起的分开；②从上向下掉下；③有命令或许可下达。下面按照上面的顺序举几个例子。袖口上的扣子掉了；天上掉下了雨滴；有出发命令下达。此外还有④考试或选举时没有被选或没有合格；⑤空间方面具有一定的距离；⑥价值、水平、成都比以前降低等的意义。这几个使用例子有以下几个。他去年在国会议员选举中落选；便利店离地铁站有500多米；血压降低等等。

那么刘大尉问姜暮烟"我们分开吗？"具有什么意思呢？此时的'떨어지다'是关系断开或分开的意思。应该是表现出了不想和姜暮烟分开的刘大尉的内心。还可以举一个例子，比如孩子不想和妈妈分开而大哭等等。

此外还有很多。下面是'떨어지다'的用处中与'兴趣相关的表现(떨어지다的其他意思)'。'喝一杯柚子茶，感冒很快就会好起来(病情好转)'，'对那个人的感情疏远了(感情逐渐减少或没有)'，'太紧张，不容易说出话来(话说出口)'，'卖一杯咖啡就剩400远(发生利润)'，'零花钱用完了怎么办？(钱或物品用完，没有剩下的)'。

到此为止~！'떨어지다'的用处再怎么使用也用不完。使用非常无穷无尽。是不是觉得意义非常复杂？ 经常反复熟悉一下如此用处多样和日常生活中经常使用的'떨어지다'。这样您就会不知不觉成为韩国语的专家。

한국 사람들은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쓰죠?

한국의 관광명소 제주를 찾은 David. 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하며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찰나, David 앞으로 한 무리의 여자들이 지나갑니다. '어라? 햇빛이 쨍쨍한데 왜 다들 우산을 쓰고 있지?' 한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한국의 양산을 보며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라마다 환경과 정서가 달라 벌어지는 현상인 것이지요.

David came to the famous tourist destination in South Korea, Jeju Island.
When he was just about to enjoy the warm sunlight and beautiful landscape,
he sees a group of women passing him by. It is sunny today, but why are they using an umbrella?
Many foreigners are baffled by Korean people using a sun umbrella to block the UV rays.
It is part of culture shock that people experience in a different environment and culture.

정리 **박지연**

햇빛이 쨍쨍한데 왜 우산을 쓰지?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고마운 양산. 양산은 강한 햇볕을 막아주어 피부를 보호하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양산을 쓰고 다니는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의문을 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쓸까?" 햇빛을 가리기 위해 사용된다는 양산의 목적을 알고 난 후에도 이들의 궁금증은 계속 됩니다. "쐬기에도 아까운 햇빛을 왜 가린다는 거지?"

외국인, 특히 환경적으로 햇빛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은 일광욕을 즐기며, 태양을 쐬기 위해 일부러 해변을 찾습니다. 또한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를 건강미 있는 아름다운 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 태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어느 지역에서든 햇빛이 풍부하여 사람들이 햇볕을 쐬지 못하는 아쉬움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서양인들에 비해 유전적으로 피부가 쉽게 그을리는 한국, 동양권 사람들은 햇볕에 그을리지 않은 피부를 보다 선호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외출 전 양산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랍니다.

한국 사람에게 사진을 부탁하면 작게 나온다?

빛나는 바다, 청량한 공기. 제주에서의 만족스러운 하루 일정을 마친 David은 숙소로 돌아와 여행 사진을 살핍니다. 아쉽다, 한국인에게 부탁한 사진 대부분에서 David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사진 속 내가 너무 작게 나왔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때때로 이러한 경험을 겪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 나라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바라볼 때 주변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합니다. '조화'라고 할 수 있지요. 인간을 바라볼 때에도 역시 자연과의 조화, 어우러짐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사진 프레임에서도 반영됩니다. 한국인들에게 사진을 부탁하면 인물이 중심이 되기 보다는 배경이나 건물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지요. 한편, 전통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힘을 강조했던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 이들이 찍은 사진 속 프레임을 보면 주위의 배경보다 인물에 초점이 두드러져 있답니다.

눈으로 말해요, 한국식 이모티콘

감정(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인 이모티콘은 문자, 기호, 숫자 등을 조합하여 만든 그림 문자입니다. 사람들은 텍스트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이모티콘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달하지요. David는 여행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과 단체 채팅을 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한국 친구들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에서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살펴볼까요? '^^, -_-, ㅜㅜ, ㅠㅠ' 처럼 한국인들은 주로 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D, :), :-(' 처럼 입꼬리가 강조되는 David의 이모티콘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왜 일어날까요? 바로 동서양의 정서, 문화의 차이에서 연유됩니다.

대체로 동양인들은 감정 절제에 익숙합니다. 감정 표현에 적극적인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특히 한국은 예로부터 말을 많이 하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지 않고 웃는 사람을 보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죠.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눈을 통해 미묘히,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명 '눈치 문화'와 맥을 함께 하지요. 반면, 서양인들은 얼굴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 기관인 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과감히 표출합니다. 이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들의 정서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	미소 지을 때 Smiling	활짝 웃을 때 Laughing	슬플 때 Feeling sad	놀랄 때 Feeling surprised	깜찍한 표정 Cute expressions
감정 절제가 익숙한 문화권 (한국, 일본 등 동양권 국가) Cultures with restrained emotional expressions (Eastern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Japan)	^^ ^.^ ^_^	^o^	ㅠ_ㅠ ㅜㅜ ;_;	o_o	>_< >.<
감정 표현이 적극적인 문화권 (미국 등 서양권 국가) Cultures with active emotional expressions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S)	:) :-) =)	;P ;D :-D XD	:((:-(	:O :-O	*D XO

한국과 프랑스의 130년 우정을 말하다

동쪽 작은 나라가 지구 반대편 서양 나라와 오랜 기간 인연을 유지해 올 수 있을까?
한국과 프랑스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함께해 왔다. 2016년은 한 · 불 수교 130년을 맞는 해이다.
두 나라는 돈독함을 다지기 위해 서로의 나라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역사를 되짚어 보며 앞으로 나아갈 두 나라의 미래를 그려보자.

글 김경주

19C~ 조선과 프랑스의 아픈 과거를 아시나요?

공식 수교를 하기 전부터 두 나라는 서로를 알고 있었다. 19세기부터 프랑스는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하여 선교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그러나 조선 말,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문을 걸어 잠그고 무자비한 천주교 탄압정책을 시작한다.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을 당하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와 조선은 무력으로 충돌하고 만다. 병인양요다. 결국 양국은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기게 되는데….

1886~ 첫번째 공식 수교 '조불수호조약'

사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이 개항을 시작하면서 서양의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자, 프랑스도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조선에 손을 내밀었다. 프랑스는 이권을 챙기려는 욕심만으로 수교를 맺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다. 조선이 천주교를 인정하게 하고, 학교와 의원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그들은 종교전파를 위한 조항을 넣어 양국이 진정으로 결합하도록 애썼다. 드디어 1886년 5월 3일 '조불수호조약'이 체결되어 양국의 관계가 진전되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된다.

1919~ 임시정부의 든든한 조력자

사진 출처 **국가보훈처**

대한제국이 국권을 빼앗긴 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애국의 움직임이 생겨났지만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프랑스는 국내에 임시정부를 둘 수 없던 우리나라를 위해 중국, 상해 조계지역에 자리를 내주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암묵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의 도움 아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의 감시에서 벗어나 상해에서 27년간 독립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1949~ 한번 더 프랑스와 손을 맞잡다

사진 출처 **전쟁기념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2월 15일, 프랑스 정부가 한국을 승인하여 양국 간의 공식 교류를 다시 재개했다. 1년 뒤 한국전쟁이 터지자 프랑스는 1개 대대를 파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물밀 듯 내려오는 중공군을 상대로 미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은 지평리 전투를 치렀고,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였다. 이 승전은 땅에 떨어졌던 국군과 유엔군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16~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과 프랑스

첫 공식 수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프랑스는 우호국으로써 관계를 잘 쌓아오고 있다. 2004년에는 고 노무현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국제 정치의 의제에서 협력하고 무역량을 2배 증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프랑스는 양국 간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었던 외규장각을 한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었다. 이렇게 한국과 프랑스는 한발 다가가고, 한발 양보하며 함께 성장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두 나라가 함께 나아갈 다채로운 미래가 벌써부터 그려진다.

흥(興)민족 대한민국

흥을 모르면 한국을 안다고 말하지 마라

People of Joy: You cannot understand Koreans without knowing what heung is

글 **박지연** 참조 **〈흥한민국, 심광현〉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주영하 외〉**
사진 출처 **www.shutterstock.com**

힙합이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전면으로 떠올랐다. 그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심지어 한 예능에서는 60살 이상의 노년 여배우들이 나와 힙합을 한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않던 관중들도 어느새 무대와 하나가 된다. 현장은 그야말로 무아지경, 흥분의 도가니다. 그런데 이 광경, 그리 낯설지가 않다. 왠지 모를 정겨움과 익숙함이 느껴지는 이유, 힙합의 무대는 한국의 전통 판소리와 마당극을 꼭 닮아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모든 것은 즉흥적으로 변주되어 간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한국의 '흥'이 흐르고 있다.

Hip hop has emerged as a major force in the Korean pop culture. And its popularity is only increasing. A recently launched TV show features elder actresses who are over 60 and learning hip hop. The audience, who, did not expect much at first, soon became immersed with their performance, which produced a sort of trance that, somehow, does not look unfamiliar. We feel familiar with this type of excitement because hop hop performance reminds us of pansori, traditional musical storytelling, and madangeuk, traditional Korean street theater. There is no boundary between the stage and audience and everything becomes improvised in the end. And, underneath all these is the 'joy' of Korea.

흥 많은 대한민국

2002년 한 · 일 월드컵 당시 한국 전역의 거리를 수놓은 붉은 물결, 낮이고 밤이고 그칠 줄을 모르던 붉은 악마들의 응원 행렬을 보고 수 많은 외신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이나믹 코리아'. 세상은 한국의 역동성, '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흥(興)은 무엇일까? 사전 속 의미를 살펴보면 '신이 나거나 감탄할 때 내는 콧소리'로 감탄사를 뜻하기도, '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 흥은 즐거움, 유쾌함 등의 긍정적인 감정이 차오르고 고양된 정서적 상태를 뜻한다. 한국말 중에는 흥을 언급하는 말이 유독 많은데 '흥겹다', '흥이 난다', '흥이 솟다', '흥을 더하다' 등이 그 예이다. 이 단어들을 통해 '흥'의 공통적인 속성을 알 수 있다. 상승의 상태. 역동적으로 상승하는 흥의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가? 내면의 가득 차오른 즐거움이 외부로, 육체적으로 발산되는 순간이 바로 흥이 드러나는 때이다. 아무런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말 그대로 흥이 저절로, '절로' 나는 순간인 것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흥이 넘쳐 흘렀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곤 했다. 사람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는 그 곳엔 모두를 아우르는 흥도 있었다. 거리 한복판 탈춤판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한데 모였다. 덩실대는 장단에 맞추어 어깨춤을 들썩이고 흥을 돋구었다. 이러한 흥(興)의 문화가 현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Joyful Korea

During the 2002 World Cup, foreign press was amazed by the groups of supporters in red t-shirts who cheered in the streets day and night. 'Dynamic Korea'. After this festival in which people gathered and shared joy, the world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dynamic 'joy' that is characteristic of Korea.

What is joy? It is defined as 'feeling of great pleasure and happiness.' It means an elevated state of mind caused by great pleasure and happiness. Heung, the Korean word for joy, forms part of many other expressions as well, such as 'rejoice', 'be excited',

'enjoy' and 'add joy'. These expressions share a common image, i.e., a dynamic image of elevation. It is different from one-dimensional fun or pleasure. Heung is revealed when the joy that surges from within is expressed through the body. It does not involve any will and you just feel joy, 'heung,' without realizing.

Korea has always been a country of joy. People would throw parties whenever there is an occasion to celebrate. And 'heung' accompanied people, delicious food, songs, and dance. When there is a mask dance performed in the street, passers-by would gather around the stage, dancing along the rhythm and raising the 'heung..' And this culture of joy has been continued to date.

긍정으로 솟아나는 흥의 에너지와
무한히 뻗어나가는 흥의 잠재성은
한국을 굽이쳐 흐른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어느 것 하나가 소외되지도 않는
흥나는 분위기 속에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즐겁다.

대한민국 성장동력, 흥의 힘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 세계 최빈국으로서 타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어느새 타국의 성장을 돕는 나라가 된 것. 세계의 경제를 논하는 G20의 회원국이 되었고, 세계 각종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한국 전역을 관통하는 흥이다. 한국은 흥의 에너지로 넘실거린다.

상갓집에서 조차 흥의 정서가 발견되는 한국은 흥 공동체다. 상갓집에서 사람들은 정적과 침묵을 지키며 슬픔을 애도하기 보다는, 웃고 떠들며 함께 밤을 지샌다. 흥이 가진 상승의 정서는 슬프거나 부정적이지 않고 밝다, 긍정적이다. 억눌려 있던 한이 풀리면 엄청난 강도로 흥이 솟구치는데 이는 무거움을 가볍게 승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흥이 가진 힘이다.

흥은 그 자체에 여러 사람들과 나눌려는 속성이 깃들어 있다. 어울림을 추구하려 할 때 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흥은 전이성이 강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된다. 따라서 흥은 즉각적이며 참여적이다. 흥에 동참하는 순간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함께 어우러진다. 넓게 그리고 강력히 결속되는 흥의 힘은 무한하며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다.

긍정으로 솟아나는 흥의 에너지와 무한히 뻗어나가는 흥의 잠재성은 한국을 굽이쳐 흐른다. 역사적으로 역경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의기투합하여 하나로 뭉쳤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농민항쟁, 일제강점기의 3 · 1 운동, 4 · 19 혁명 등 위로부터의 억압과 착취에 대항했던 민중의 역동적 에너지는,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흥의 속성을 꼭 닮았다. 이것은 자신을 옭아매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새로움을 향해 뻗어 나아가는 창조의 희망이다.

Power of Heung, Driving Power of Korea

South Korea achieved what has been named as the 'Miracle of Han River.' A country that used to be one of the poorest in the world and receive aid from other countries now became an aid donor and also part of G20, showing outstanding results in various international fields. One of the factors that enabled such development was heung, which is found throughout the country. Korea is full of joyful energy.

Korea is certainly a country of joy as 'heung' is even found at funerals. During the funeral, instead of remaining silent and only grieving, visitors spent the whole night laughing and talking. Joy is a positive emotion. After the suppressed han, resentment, is resolved, powerful heung surges, lifting up the heavy mood. This is the power of heung, a positive mindset toward life that transcends han and resolves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Heung doubles when shared. And, by nature, it cannot help but be shared together with others, because heung is brought out when you share happiness in harmony with other people. Also, heung is infectious and spreads easily among people in the same space. Therefore, heung is instant and participatory. The moment you take part in heung, everyone becomes a subject of celebration. The power of heung brings people together widely and powerfully. It has no end.

Historically, Korean people join forces and fight together during a difficult time. Especially, the dynamic energy of the people fighting against oppression and exploitation, as shown during the Peasant Uprising during Joseon, 3.1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4.19 Revolution against dictatorship, characterizes heung, which rises from the bottom to the top and brings people together. It is liberation from oppression and hope of creation towards the new.

세상에 한국의 흥을 알리다

세상은 한류에 주목한다. 한류를 이끄는 주역은 케이팝이다. 그 핵심에는 한국만의 흥이 흐른다. 지구촌 전체를 말춤에 빠뜨렸던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케이팝의 대표적 예이다. 중독성이 강하고 반복되는 일렉트로닉 리듬과 후크적인 후렴구는 국제적인 대중성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케이팝에 차별화를 가져온 '흥'은 어떤식으로 나타났을까?

'강남 스타일'은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재미를 주었다. 클래식한 옷차림과 코믹한 말춤이 희극적인 불일치를 가져다 주었다. 다른 예로 소녀시대의 'Gee'에서는 아리따운 소녀들이 개다리춤을 추었다. 게다가 케이팝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슬픔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이별 속에서 만남을 바라본다. 이처럼 섞일 것 같지 않던 요소들이 한데 섞이고 이해하며 케이팝은 밝고 유쾌한 정서를 만들어낸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어느 것 하나가 소외되지도 않는다. 전체를 아우르는 케이팝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는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즐겁다.

세상에 통하는 한국적인 모든 것은 고정불변한 흐름 속에서 역동적인 에너지, 즐거움을 선사한다. 노동의 고됨을 흥겨운 장단에 맞춰 놀이로 풀어낸 난타 공연, 3박 플러스 2박으로 역동적인 엇박을 만들어내는 월드컵 응원, 예측할 수 없는 유동적인 자연의 흐름을 곡선의 아름다움으로 풀어낸 한복과 전통 건축, 날것과 익힌 것 사이의 삭힘으로써, 시간과 온도에 따라 그 종류와 맛이 늘 변주되는 한국의 발효음식. 이 모두가 흥을 담았다. 그리고 가장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Korea's heung spreads to the rest of the world

As a culture powerhouse, Korea is drawing attention from the rest of the world. Korean Wave is led by K-Pop, which is, not surprisingly, based on 'heung' that is unique to Korea. Take Gangnam Style, which brought the whole world together with a horse dance, for example. The song was both universal and uniquely Korean. The addictive and repeated electric rhythm and chorus gained global popularity. How was 'heung' incorporated into K-pop, making it stand out from other types of pop music?

The popularity of 'Gangnam Style' was derived from its comical elements, such as the contrast between classic outfit and comic horse dance. Another example is Gee, by SNSD, who performed 'crab dance' for the song. The contents of K-Pop mix joy and sorrow, and parting and meeting. By mixing contradictory elements together, K-Pop creates joyful emotions, i.e., 'heung' of K-Pop. It does not lean toward either side, nor does it leave anything behind. By embracing all, K-Pop brings joy to everyone.

Everything Korean that is loved worldwide gives dyanmic energy and joy in a consistent flow. Nanta talks about tiresome life in exciting rhythms, the Korean world cup cheering is based on dynamic cross-beat, hanbok and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that interpreted the fluid curves of the nature into unique beauty, and fermented Korean food that varies in taste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and time of fermentation, all these are most Korean things and spreading throughout the world day by day.

아직도 모르셨나요? 입국 후 휴대전화 개통이 바로 되는 '실시간 실명인증 서비스'

With 'Real-time name verification service' , you can activate your cellular phone, right after you enter Korea

일러스트 **강주연** 자료제공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각종 출입국심사 서비스와 외국인정책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공존〉 편집실(zee@theseven.co.kr)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Q 비즈니스 차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2년 전 한국 여행 당시가 떠오르네요. 한국 입국 직후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했지만, 4일이나 걸려 여행 중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개통이 신속히 되지 않는다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I'm going to go on a business trip to Korea. The memory for my last visit to Korea, which was 2 years ago, flashes through my mind. I experienced inconvenience because activation of my cell phone took staggering four days after I registered for the activation, immediately after my arrival. This time, I'm going on a business trip to Korea. So I won't be able to stick to my schedule if my cell phone isn't activated upon my arrival. Is there any solution for this problem?

A 지난해 10월부터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은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죠.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를 신속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외국인의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 날 생성되도록 설계된 출입국관리시스템이 그 원인이었죠. 입국 직후 휴대전화 개통까지 3~4일이 걸리는 것이 기본이라 한국을 찾은 많은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입된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할 때 신원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저장,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된 제도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 대리점의 의뢰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즈니스, 교육, 여행 등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이제 여권 하나로 한국 입국 즉시 핸드폰을 개통하여 보다 편리한 한국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Real-time name verification service' was launched in October 2015. By using this service, any foreigners, visiting Korea, can activate their cell phones whenever and wherever they want, like Korean citizens.

Foreigners are required to have their name verified to open cell phones in Korea. To that end, they need to have their identities verified and prove the fact they entered Korea.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them to go through such formalities quickly before the launch of 'Real-time name verification service'. The main reason was that Korea's border management system was designed to create records of foreigners' entry into Korea the day after they entered Korea. Therefore, it usually took three to four days to activate cell phones, which caused a lot of inconvenience to foreigners visiting Korea.

'Real-time name verification service' is an improved system which stores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foreigners in the computing system when they go through immigration. By using the information stored in the system, 'Real-time name verification service' can be provided. Specifically,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KAIT) is requested to verify the identities of foreigners from cell phone sales agents and notify a relevant immigration office of the results.

Foreigners visiting Korea on business, education, or sightseeing can now enjoy their lives in Korea with this convenient service by which they can activate their cell phones with passports upon their arrival .

걱정 마라, 선배가 있다

낯선 한국생활, 우리가 도와줄게요!

처음은 낯설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처음의 순간. 한국을 처음 방문했거나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들은 한국생활이 익숙치 않다.
이들이 겪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배'가 있다. 몽골에서 온 은지 씨와 러시아에서 온 리자 씨, 그녀들은 한국에 먼저 정착한 한국생활의 '선배'들이다. 한국이 낯선 초짜 외국인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 멋진 선배들이 당신의 어려움을 재빠르게 해결해 줄 테니까.

글 **박지연** 사진 **나우연**

제 10회 고양시 국제 꽃 박람회장. '꽃과 호수, 신 한류 예술의 합창'을 주제로 담아낸 이번 축제는 전 세계에서 온 총 1억 송이의 꽃들이 조화를 이룬다. 국제 행사답게 수많은 인파 곳곳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모습을 비춘다. 꽃들의 향연,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는 것은 국적에 무관하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꽃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이 곳이 바로 공존의 장이다.
그녀들이 떴다. 몽골에서 온 은지 씨와 러시아에서 온 리자 씨. 그녀들은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알맞은 병원을 매개해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녀들은 박람회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외국인 관람객을 돕는 '워킹가이드'로 나섰다.

워킹가이드는 고양시 소속으로,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러시아어 · 불어 등을 사용하여 각종 축제나 관광의 목적으로 고양시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워킹가이드로 일하며 한국인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는 리자 씨. 특히 파트너로 함께 다녔던 워킹가이드 할아버지들과의 시간은 매우 유쾌하다. 그들로부터 솟대, 장승, 막걸리 등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많이 배우고 있다고.

은지 씨는 매의 눈이다. 한국 사람과 외양의 차이가 크지 않은 베트남인, 태국인 등을 바로 알아본다. 외국인들의 주변으로 먼저, 선뜻 다가가 도움을 건네는 그녀의 센스는 곳곳에서 빛을 발한다.

관광안내센터로 돌아와 활동 완료 사인까지 마치면 드디어 퇴근이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다. 여기서 끝이냐고? 천만의 말씀. 머지 않아 개막될 장미꽃 축제 준비에 한창이라는 그녀들의 도전은 멈춤이 없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은지 씨와 리자 씨의 파트너로 나선, 중국어 관광가이드가 꿈이라는 한국인 빛나 양까지 모였다. 오후 1시에 세 여자는 한 팀을 이루어 고양시 국제 꽃 박람회 현장을 찾았다. 세계인이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축제의 장에서 이들은 누구보다 축제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내고 있었다.

올해로 '워킹가이드' 두 번째 참여자인 있는 리자 씨, 그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온지 약 2년이 되었다. 모국어인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사용해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 방문한 제 고향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반갑고 또 보람이 돼요."

은지 씨는 몽골에서 왔다. 2004년에 왔으니 한국에서 산 지가 벌써 12년째다. 그녀는 길이가 긴 몽골 이름을 신기해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일찍이 한국이름으로 개명을 신청했다. 현재 한국인 남편과 아들, 딸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중이다. 은지 씨는 주로 관광안내센터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상대한다. 언어는 몽골어와 카자흐스탄어. 머지 않아 몽골에서 10명의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녀는 이들을 대상으로 관광 가이드를 할 예정이다.

"워킹가이드를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고요. 사실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을 보면 반가워 먼저 이야기를 건네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저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이 둘의 성격은 정 반대다. 리자 씨가 거침없고 쿨한 성격이라면, 은지 씨는 차분하고 푸근하다. 하지만 도움을 구하는 관람객들을 향한 마음은 다르지 않다. 도움을 청하는 외국인들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진다는 그녀들. 이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낯선 방문객들의 마음을 달랜다. 한국 생활 초반에 겪었던 어려움을 알기에. 그래서인지 워킹가이드로 일하는 그녀들의 사명감은 남다르다. 은지 씨는 말한다. "일하는 지역 곳곳에 뭐가 숨겨져 있나 조사하고 보게 돼요. 자전거를 타고 화장실의 위치, 전시관의 위치를 꼼꼼히 확인해요. 이 곳을 잘 모르면 워킹가이드로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한국을 빛내는 숨은 주인공

한편, 워킹가이드로 함께 활동하며 알게 된 리자 씨와 빛나 양은 특별한 인연이다. 2010년도, 이 둘은 모두가 하얼빈에 있는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이었던 것. 처음 봤을 때 서로가 왠지 낯이 익었다는 그녀들은 서로를 보며 다정한 웃음을 짓는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워킹가이드로서 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하루 총 4시간. 그녀들에게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화장실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나가는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등이다. 이 사소해 보이는 질문들은 실은 매우 중요하다. 실컷 구경하고 나서 나가는 출구를 모를 때만큼 난감한 순간이 있을까? 그녀들의 마음은 모두 같다. "관람객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제 색을 드러내며 황홀히 빛을 뿌리는 꽃들과 국내외 관람객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박람회장. 갈증을 달래기 위해 때로는 쉬기도 하고,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느라 동이 난 안내 팜플렛을 가지러 부스로 향하기도 한다. 그녀들은 지친 기색이 하나 없다. 꽃만큼이나 화사한 미소를 품고 축제의 장을 활보하다 보니, 어느덧 5시다.

오늘도 일과를 무사히 마쳤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다는 기쁨에 에너지가 솟는다. 외국인들이 겪는 한국에서의 낯설고 거친 순간을 순탄히 그리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녀들은, 글로벌 한국을 빛내는 숨은 주역들이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모두 안전하게 사는 사회를 지향하며

지난 몇 년간 런던, 파리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테러에 가담한 사람 중 일부가 이주민이거나 그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2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주민이 마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그리고 이민이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요소인 것처럼 이주민과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의 대테러전쟁이 정부의 이민통제와 안보담론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민의 결과가 아닌 종교적, 경제 · 사회적 갈등의 결과다. 위의 사건들은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주기는 하였지만, 이민정책 분야에 있어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안전은 이주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의제다.

글 **최서리** 부연구위원(IOM이민정책연구원)

불법입국 사전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안전은 이민정책의 여러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잠재적 위험인물의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입국 후에도 외국인이 안전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입국과정에서의 안전 관리를 살펴보자. 한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의 입국 장벽을 낮추고 있다.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문서 위조나 밀입국 등의 불법입국 방법 역시 고도화되고 있으며, 초국적 범죄조직에 의한 외국인의 조직적 불법입국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전허가 없이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적발하기 위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무비자협정을 맺지 않은 기타 국가 출신자에게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외국인의 신상을 파악하게 되고 위험인물을 1차적으로 걸러내게 된다. 더불어 국내에 입항하는 항공사나 선박을 통해 탑승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입국 시에도 여러 가지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심사를 하면서 수 차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심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의 불법입국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가 잠재적 위험인물의 입국을 제대로 통제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불법입국과 국내 거주민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현상의 상관성은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정부가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외국인이 불법적인 경로로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이들의 입국목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국내 거주민의 입장에서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사람 중 누군가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막연한 불안감은 이주민 집단 전체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불법입국 사전방지를 위한 이민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내 입국이나 취업을 알선하는 업자들이 존재하고 이주민 중 일부는 이주 과정 중에 혹은 이후에라도 인신매매나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불법이민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선주민, 이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체류자 관리

현재 90일 이상 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하며, 거주지를 이동할 때마다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체류 관리를 통해 이주민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의 경우 국내법이 허용하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정부에의 신고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주민은 일반적으로 단신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신고하지 않는 한 그의 행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체류기간 초과자의 경우 특히 정부가 그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체류기간 초과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권력이 동원 · 투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공권력의 침입(예: 사업체 조사, 길거리 단속 등)을 인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권력 집행과정에서도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체류기간 초과자들이 개입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모든 체류기간 초과자들을 동일하게 범죄집단화 하면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바라본다. 이는 이주민 전체에 대한 편견을 양상할 수 있다. 이들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 거주하는 이주민은 체류자격에 따라 영토 내에서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누려야 한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지,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근무환경 개선은 궁극적으로 이주민뿐만 아니라 선주민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성매매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보고도 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외국인근로자가 컨테이너 등의 임시가건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요소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이주민의 한국 적응을 돕는 인프라 구축 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않은 이주민은 위험상황을 인지하거나, 그 상황에서 대처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다국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능력은 한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국 당시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중 여러 단계에서 이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줄 기회를 마련해 해야 하고 그 교육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등 건강상 어려움에 직면한 이주민 중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직장의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지역의료보험이라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역건강보험 가입부담을 낮추는 등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의 이민정책의 큰 틀을 보여주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안전'은 다섯 가지 정책목표 중 하나이다.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이민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다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사는 사회를 바라며 앞으로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와 유관부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해 본다.

IOM이민정책연구원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IOM • OIM IOM • MRTC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간 국제협정에 의해 200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 · 교육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 다문화 정책에 특화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 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I.S. CALENDA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화제의 NEWS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6개월간(2016. 4. 1~ 9. 30) 한시적 운영

법무부는 2016년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감면하였으며,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 ·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입국 ·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동네 이민자는 우리가 도와요

이민자 돕는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개최

법무부는 지난 3월 28일 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으로는 법률 · 인권, 보건 · 의료, 교육 · 문화, 경제 · 경영, 행정 · 복지, 언론 · 홍보, 지역전문가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활동하게 되며, 지역 내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법률상담, 의료검진, 취업지원, 공교육 진입 유도, 문화교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총 240명이 위촉되었으며, 위촉식에는 각 지방협의회에서 선출된 정 · 부회장 등 30명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위촉장 수여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으로서의 활동계획 및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건의가 이어졌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사를 하면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민자들이 타지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통해 질 높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도입 한달 여 만에 정착

방문예약율 44%로 증가, 민원대기시간 대폭 단축

◀ 2015년 3월 7시 30분경 서울사무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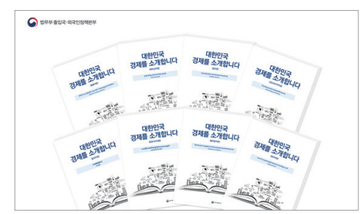
▶ 2016년 3월 7시 30분경 서울사무소 전경

법무부가 올해 2월부터 수도권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 결과, 시행 전 4%에 못 미치던 방문예약율이 시행 후 44%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민원처리 대기시간도 대폭 단축(약 3시간→10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2월 1일부터 3월 21일의 기간 동안 방문예약을 통한 외국인 체류민원의 평균 예약 처리율은 44.43%(45,635건/102,702건)를 기록, 2015년 한해 평균 3.5%에 불과하던 것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사무소별 일일 방문예약자 할당을 통해 특정 출입국사무소에 민원이 몰리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방문예약제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외국인들이 민원을 보는 날짜와 시간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민원인들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무부,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이민자 경제교육에 나선다

전직 증권사 CEO 등 전문가 강사 초빙



법무부는 5월부터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시장경제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와 미래에셋대우가 함께 마련한 이민자 경제교육은 대한민국의 생활경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총 교육 과정은 약 2시간 분량이다. 교육은 은행 이용방법, 소비자 피해 시 구제수단 등 이민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제문제들을 주제로, 전직 증권사 CEO 등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다. 교재는 미래에셋대우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저술되었고, 이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의 8개 언어로 제작되었다.

이번 경제교육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300개 기관 중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78개 기관, 약 1,800여 명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향후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80% 가량이 중국, 베트남, 몽골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 출신이며,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한국의 시장경제질서와 자라온 환경이 달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 태국 간 국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주한 태국대사 방문

불법체류 태국인 감소 방안 제고

지난 5월 4일 주한 태국대사는 한국과 태국 양국 간 국제협력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를 방문했다. Sarun Charoensuwan 주한 태국대사를 비롯해 총 4명의 방문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가량 출입국정책단장을 포함한 5명의 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 방안 제고를 논하고, 불법체류 태국인 자진출국 유도를 위한 협력 요청이 이루어졌다.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률 10% 미만으로 줄인다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의결

지난 4월 4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2006년도에 설립된 위원회로 외국인정책 기본 · 시행계획 수립, 외국인의 사회적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참석에는 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5명 등이 함께 했다.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정책도 크게 바뀐다. 조기 적응프로그램의 이수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한편, 동포포용 차원에서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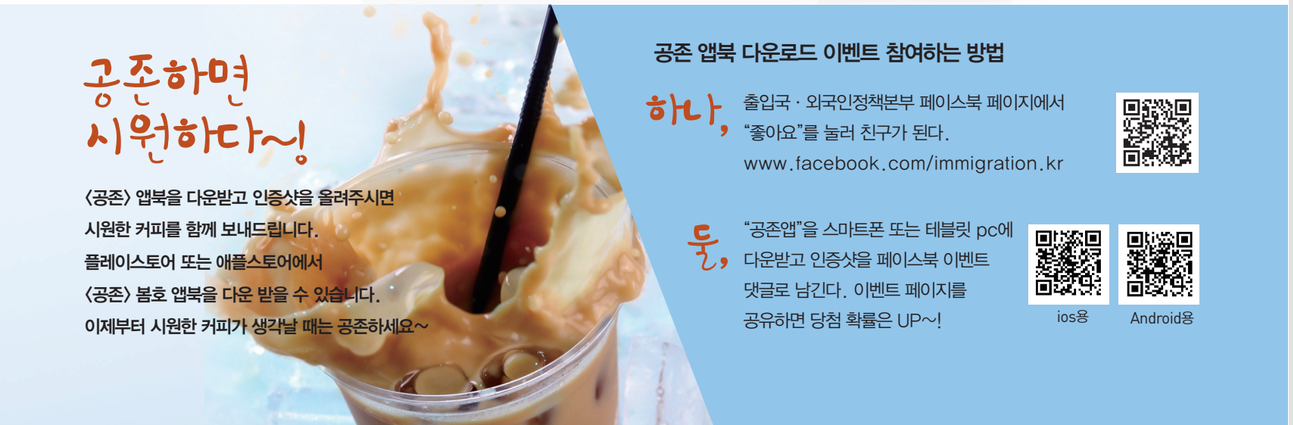
외국인정책기본계획('13~'17)에 근거하여 확정된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5대 부문 총 1,227개의 과제가 추진된다.

5대 부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둘째,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위해 국적제도가 개선된다. 셋째, 이민자들의 생활편의 지원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넷째, 국경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난민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동포사회와의 교류 · 협력을 확대한다.

공존하세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가 발행하는 정보 매거진 〈공존〉을
앱북(App Book)으로 즐겨보세요~

〈공존〉 앱북
IOS용 버전은
앱스토어에서,
Android용 버전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존하면 시원하다~!

〈공존〉 앱북을 다운받고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시원한 커피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공존〉 봄호 앱북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원한 커피가 생각날 때는 공존하세요~

공존 앱북 다운로드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하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눌러 친구가 된다.
www.facebook.com/immigration.kr

둘, "공존앱"을 스마트폰 또는 테블릿 pc에
다운받고 인증샷을 페이스북 이벤트
댓글로 남긴다.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하면 당첨 확률은 UP~!

ios용 Android용

Dear Friend

멕시코에 있는 내 친구 알레한드로에게

잘 지냈지, 친구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한국에 온지 벌써 2년이 되었어.
한국에 온 후로 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관심이 생겼는데 마침내 저번주 북촌한옥마을에 가서
한복을 입어 봤어. 북촌한옥마을에는 한복을 빌려주는 가게들이 많아. 우리는 한 가게에 가서
한복을 빌려 입었어. 너도 예전에 봤겠지만 한복은 보통 위, 아래 두 가지 옷으로 되어 있어.
한국사람들은 보통 한복을 설날, 추석, 결혼식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다고 해.
난 상의가 파란색이고 하의가 보라색인 한복을 골라 입었어.
그날 난 한복을 입고 창경궁에 가서 사진도 찍고 참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
한복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데 내가 외국사람이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였어.
한복을 입으니 내가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던 걸? 한복을 입어보니 한국문화가 더욱 더 친근하게
느껴졌고 한국문화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싶어. 너도 한국에 한 번 놀러 오길 바란다.

– 너의 친구 마르코가

마르코 레피네 (Marco Lepine) 씨는
멕시코인이며 한국에 온지 어느덧
2년 반이 되었다. 스페인어 선생님이자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올라카페의
주인장이다.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

Government at your fingertips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16. 6. 19.(일)~22.(수) 코엑스 3층 C홀

대한민국정부